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6.8

미 증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불구 반발 매수 유입되며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타깃이 2분기 실적 부진을 경고하며 급락했고 ‘높은 인플레이’ 우려와 함께 세계은행(WB)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자 경기 침체 이슈까지 더해 하락 출발. 그러나 관련 소식은 이미 선반영 되었다는 평가가 높아지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옐런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 이후 상승 전환 성공. 특히 소매 유통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군이 상승해 투자심리에 긍정적(다우 +0.80%, 나스닥 +0.94%, S&P500 +0.95%, 러셀2000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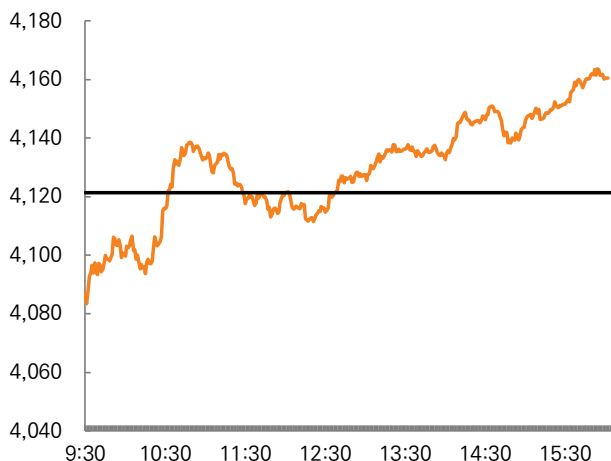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애플(+1.76%)은 개발자회의에서 발표된 제품들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며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많은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자 상승. MS(+1.40%)는 최근 강달러를 이유로 실적 가이드를 하향 조정 했으나, 모건스탠리가 최근 가격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알리바바(+5.36%), 핀두오두오(+10.12%), 등 중국 기업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시사가 이어지자 상승 지속. 콜스(+9.54%)는 프랜차이즈 그룹과 매각 협상 돌입 소식에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58%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3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4.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9%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에서 타깃의 이익 경고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세계은행이 무역 규모에 대해 지난 1월 대비 1.8%p 하향 조정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담. 그러나 관련한 내용은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특히 주요 경제지표 등을 감안 경기 침체 우려가 당장은 높지 않은 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일과 달리 안정을 찾은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되돌림이 유입되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26.34	-1.66	상해종합	3,241.76	+0.17
KOSDAQ	873.78	-1.99	홍콩항셍	21,531.67	-0.56
DOW	33,180.14	+0.80	베트남	1,291.35	+0.10
NASDAQ	12,175.23	+0.94	유로스톡스 50	3,806.74	-0.83
S&P 500	4,160.68	+0.95	영국	7,598.93	-0.12
캐나다	20,928.21	+0.52	독일	14,556.62	-0.66
일본	27,943.95	+0.10	프랑스	6,500.35	-0.7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②옐런 재무장관 발언

세계은행(WB)이 2021년 5.7%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2022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이는 1월 전망했던 4.1%에서 하향 조정된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우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 특히 1970년대와 비교하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지속적인 공급측 혼란, 성장 악화에 대한 전망, 신흥국의 취약한 통화정책 등이 당시와 유사하다고 언급.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신흥국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1970년대와는 달리 신흥국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대한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각국의 결단력 있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유가 및 식량 가격 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흥국 부채 탕감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상품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활발한 공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선진국 성장률도 지난 1월에 비해 1.2%p 하향 된 2.6%로 전망 했으며, 신흥국도 1.2%p 하향 된 3.4%로 전망.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1.2%p 하향된 2.5%로, 중국은 0.7%p 하향된 4.3%로 전망한 반면, 브라질은 0.1%p 상향된 1.5%, 사우디는 2t.1%p 상향된 7.0%로, r 5.1%로 전망하는 등 상품과 관련된 국가의 경우 견조

옐런 재무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가 현지 시각 오전 10시부터 진행.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옐런 재무장관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유례없는 코로나 구제 금액이 이를 촉발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실책을 집중 언급했으나 옐런 장관은 그 금액이 결국 미국 경제를 살려 냈으나 인플레이션의 중대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

한편, 옐런 재무장관은 ‘클린에너지법, 처방약 개혁안’ 등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소비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더불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 관련해서는 구매자들이 러시아 원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여러 방식이 있으며 미국의 주요 정책은 결국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

옐런 장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더불어 비록 높은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중국 기업 강세 Vs. 소매 유통업종 부진

애플(+1.76%)은 개발자회의에서 발표된 제품들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며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많은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자 상승. 스카이웍(+1.68%), 퀵보(+1.56%), 브로드컴(+2.10%) 등 애플 관련주도 동반 상승. MS(+1.40%)는 최근 강달러를 이유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했으나, 모건스탠리가 최근 가격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알리바바(+5.36%), 핀두오두오(+10.12%), JD닷컴(+2.54%), 바이두(+2.44%) 등 중국 기업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시사가 이어지자 상승 지속. 엑스모빌(+4.58%), 코노코필립스(+4.54%) 등 에너지 업종은 타이트한 공급 여파로 국제유가의 견고한 모습이 이어지자 상승 지속. 특히 엑스 모빌은 투자의견 상향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콜스(+9.54%)는 프랜차이즈 그룹과 매각 협상 돌입 소식에 급등. 메이시스(+1.16%)도 동반 상승. 반면, 타깃(-2.31%)은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한 때 7% 넘게 급락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 축소. 이 여파로 월마트(-1.20%), 아마존(-1.43%), 홈디포(-0.70%), 로우스(-0.57%) 등 관련한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동반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75	대형 가치주 ETF (IVE)	+1.04
에너지섹터 ETF (OIH)	+2.87	중형 가치주 ETF (IWS)	+1.20
소매업체 ETF (XLY)	-0.25	소형 가치주 ETF (IWN)	+1.47
온라인소매 ETF (EBIZ)	+0.48	대형 성장주 ETF (VUG)	+0.91
금융섹터 ETF (XLF)	+0.77	중형 성장주 ETF (IWP)	+1.43
기술섹터 ETF (XLK)	+1.19	소형 성장주 ETF (IWO)	+1.6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7	배당주 ETF (DVY)	+1.01
클라우드 ETF (CLOU)	+1.72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19
미국 리츠 ETF (VNQ)	+1.38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14
주택건설업체 ETF (XHB)	+0.43	미국 국채 ETF (IEF)	+0.40
바이오섹터 ETF (IBB)	+2.25	하이일드 ETF (JNK)	+0.13
헬스케어 ETF (XLV)	+1.30	물가연동채 ETF (TIP)	+0.24
곡물 ETF (DBA)	-0.2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3
반도체 ETF (SMH)	+0.80	모멘텀 ETF (MTUM)	+1.5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697.38	+3.14	+5.98	+10.59
산업재	819.64	+1.36	+2.68	+1.52
헬스케어	1,530.06	+1.30	-0.51	+1.22
IT	2,473.11	+1.22	+0.82	+0.47
부동산	276.31	+1.15	-0.05	-1.45
소재	551.69	+0.72	+2.34	+3.90
금융	584.01	+0.69	-0.76	+1.22
유틸리티	379.59	+0.58	+1.03	+3.61
통신	203.45	+0.51	+0.94	+1.66
필수소비재	768.11	+0.42	-0.53	-3.94
경기소비재	1,208.40	-0.37	-0.11	-1.6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증시 주변 요인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58%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3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4.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9%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 기대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입되자 하락. 특히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관련 경계가 확대된 점이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더 나아가 달러/원 환율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15원 상승하자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가 유입되었으며, 그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 출회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하락 요인. 이 여파로 KOSPI가 1.66%, KOSDAQ은 1.99%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타깃의 이익 경고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규모가 지난 1월 대비 1.8%p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부담이기 때문. 그렇지만, 관련한 내용은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담은 제한

특히 주요 경제지표 등을 감안 경기 침체 우려가 당장은 높지 않은 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일과 달리 안정을 찾은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 나아가 북한 핵실험 관련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사례를 감안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 하락의 되돌림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중국 경제 봉쇄로 대 중국 수출입 감소

미국 4월 수출은 전월 대비 3.5% 증가. 산업용품은 3.4%, 자동차 수출은 0.7%, 식품 및 사료, 음료는 14.3% 증가. 수입은 3.4% 감소. 석유 수입은 2.6% 증가했으며 비석유 수입은 3월 11.3% 증가에 비해 4월에는 5.0% 감소. 대 중국 수출은 11.6%, 수입은 17.7% 감소해 무역적자가 432억 4천만 달러에서 349억 3천만 달러로 감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공급의 타이트함이 유입되며 상승 전환

국제유가는 장중 열린 재무장관의 러시아산 원유 공급 용인 언급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러시아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공급의 타이트함이 여전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재차 상승 전환. 특히 EIA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 기대 심리 또한 상승 요인. 한편,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 상황 조정이 이어진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달러화는 최근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하락. 다만, 엔화에 대해서는 BOJ가 지속적인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하자 강세.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매파적인 발표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 브라질 헤알화, 멕시코 페소 등 신흥국 환율은 WB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자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다리며 보험권 등락 속 혼조 마감. 장 초반 WB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 후 그 폭을 확대하자 하락폭이 축소. 한편, 3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과 같은 2.45배를 기록하자 영향은 제한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WB의 신흥국 중심의 경기 침체 우려를 표명하자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 곡물은 밀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옥수수과 대두의 경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0%, 철근은 0.29%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9.41	+1.27	+4.66	Dollar Index	102.331	-0.10	+0.57
브렌트유	120.57	+1.29	+4.71	EUR/USD	1.0707	+0.10	-0.25
천연가스	9.29	+0.11	+14.57	USD/JPY	132.63	+0.57	+3.08
금	1,852.10	+0.68	+0.43	GBP/USD	1.2596	+0.51	-0.05
은	22.18	+0.83	+2.71	USD/CHF	0.9725	+0.18	+1.35
알루미늄	2,778.50	-0.14	-3.24	AUD/USD	0.7236	+0.60	+0.82
전기동	9,699.00	-0.47	+2.54	USD/CAD	1.2531	-0.39	-0.92
아연	3,797.00	-1.96	-1.21	USD/RUB	62.4686	+1.89	-0.03
옥수수	757.00	+1.99	+0.50	USD/BRL	4.8689	+1.55	+2.86
밀	1,071.75	-1.65	-1.15	USD/CNH	6.6678	+0.16	-0.16
대두	1,549.75	+0.78	+2.38	USD/KRW	1,257.70	+1.21	+0.12
커피	232.35	-2.23	+0.39	USD/KRW NDF1M	1,254.50	+0.01	+0.9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75	-6.45	+13.13	스페인	2.409	-7.40	+18.40
한국	3.542	+13.50	+21.20	포르투갈	2.448	-6.10	+18.90
일본	0.248	+0.30	+0.50	그리스	3.816	-6.60	+23.60
독일	1.293	-2.90	+17.10	이탈리아	3.148	-11.90	+17.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